

세대별 사회안전 및 환경 의식 - MZ세대를 중심으로 세대간 비교분석 -

통계개발원은 세대 간의 사회안전 및 환경 의식 현황을 MZ세대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비교분석한 「세대별 사회안전 및 환경 의식1)」 결과를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(3.25. 발간)에 게재할 예정이다.

이에 앞서 주요 분석내용을 미리 소개하고자 한다.

세대별로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은?

2022년 사회조사결과에 따르면 사회안전 전반에 대해 대체로 쏠 세대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다만, Z세대(51.1%)와 M세대(59.6%), X세대(53.4%)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, 베이비붐세대(57.3%)와 시니어세대(60.1%)의 경우 신종 질병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절반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세대별로 우리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인에 대한 인식은?

Z세대를 제외한 쏠 세대에서 신종 질병 발생이 우리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조사된 가운데, Z세대와 M세대는 범죄와 경제적 위험을, X세대와 베이비붐세대는 경제적 위험과 국가안보를, 시니어세대는 국가안보와 범죄를 우리 사회의 선순위 불안요인으로 인식하였다.

< 세대별 사회안전 불안 요인(1순위) 분포 >



1) 본 분석은 경인지방통계청 박시내 지역통계과장, 통계청 고용통계과 이운정 사무관이 수행하였음

세대별로 환경문제에 대한 불안감은?

全 세대에서 기후변화(45.9%)와 미세먼지(64.6%)와 관련하여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한편, M세대(47.8%), X세대(47.7%), 베이비붐세대(43.0%)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불안이 40%를 상회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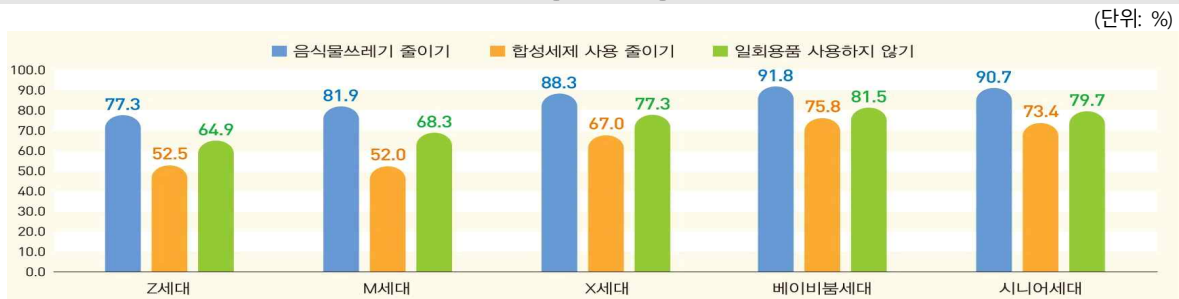
< 세대별 환경문제에 대한 불안감 >



세대별로 환경오염 방지 노력은?

全 세대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,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,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등 항목을 중심으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세대별로는 환경오염 방지 활동이 가사활동과 주로 관련된 영향 등으로 Z세대와 M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.

< 세대별 환경오염 방지 노력 >



박상영 연구기획실장은 “본 연구가 우리사회 곳곳에 열풍을 가져오고 있는 MZ세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사회 안전과 환경정책의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”고 밝혔다.

[참고] 세대의 정의

	Z세대	M세대	X세대	베이비붐세대	시니어세대
출생연도 (20년 기준(11월 1일) 연령)	1995~2005년 (14~25세)	1980~1994년 (25~40세)	1964~1979년 (40~56세)	1955~1963년 (56~65세)	1954년 이전 (65세 이상)
인구 규모	5,969천명(11.9%)	10,330천명(20.6%)	13,071천명(26.1%)	7,022천명(14.0%)	7,645천명(15.2%)

* 자료: 통계청, 인구주택총조사 20% 표본조사(2020년)

담당 부서	통계개발원	책임자	실 장	박상영 (042-366-7101)
	연구기획실	담당자	사무관	배준형 (042-366-7116)

